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0-30 (금요일)

[오늘의 한 줄]

알파벳이 잉여현금흐름 적자 충격으로 하루에 -12.6% 빠지며 상장 후 최악의 날(시가총액 약 5,000억 달러 증발)을 기록했고, 그 충격이 서울로 번져 코스피는 -3.48% 급락(5,730.74), 장중 매도 사이드카(급락 때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멈추는 장치)까지 발동했습니다. 외국인은 1.6조원을 팔았고 연기금은 8,929억원을 사며 맞섰습니다. 마감 뒤 아마존과 인텔마저 실적·전망 미스를 내며 밤사이 미국 시장의 추가 하락이 예고됐습니다.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에 +2% 반등했습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

■ 한국 시장 (10/30 정규장 마감, 오후 3시 30분)

- 코스피 5,730.74 (-206.92, -3.48%). 5,760.35(-2.99%)로 갭하락 출발해 장중 5,599.42까지 밀렸고,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. 상승 171개 대 하락 715개 종목.
- 코스닥 724.38 (-28.85, -3.83%).
- 삼성전자 225,000원 (-3.02%). SK하이닉스 141만8천원 (-7.08%). 삼성전기 119만6천원 (-7.50%). 반도체와 IT 하드웨어에 매물이 집중됐습니다.
- 전력기기 3종: HD현대일렉트릭 424,500원 (-3.63%), 효성중공업 180만9천원 (-5.34%), LS일렉트릭 149,600원 (-5.56%).
- 하락 배경(증권사 분석): 전날 알파벳 급락에 이어 마감 뒤 아마존·인텔의 실적 미스가 겹치며 'AI 투자가 실제 수익과 현금흐름으로 이어지는가'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부각됐습니다(KB증권 임정은). 업종별로 의료정밀 -7.13%, 전기전자 -4.67%가 크게 빠졌고 제약 +4.9% 등 방어주는 올랐습니다.

출처: 매일일보 마감시황 https://www.m-i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12612, 한국금융경제신문 https://www.kfe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67299, 아시아경제 https://core.asiae.co.kr/article/2026103016084854064

■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(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)

- 코스피: 외국인 -1조6,173억원(하루 순매도로는 큰 규모), 기관 +7,426억원(그중 연기금등 +8,929억원이 방어에 나섬), 개인 +6,210억원, 기타법인 +2,538억원.
- 코스닥: 외국인 -277억원, 기관 -1,375억원, 개인 +1,687억원, 기타법인 -44억원.
-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1,470억원 순매수, 기관이 1조1,192억원 순매도(아시아경제).
- 누적(9/23부터 24거래일,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, 근사치):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28.6조원, 코스닥 약 1.11조원. [계산]

- ※ 마감 기사마다 수급 수치가 조금씩 다른 것은 집계 시점 차이입니다(위 표는 15:35 기준).
출처: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30131600008

■ 미국 시장 (10/29 목요일 마감 + 마감 뒤 실적)

- 알파벳 283.82달러 (-12.64%): 상장(2004년) 후 최악의 하루. 종전 기록은 2020년 3월의 -11.63%. 시가총액 약 5,0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. 3분기 잉여현금흐름(FCF,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투자를 뺀 값)이 -90.7억 달러로 시장 예상(-27억 달러)을 크게 밑돌았고, 올해 설비투자 가이던스(1,950억~2,050억 달러)는 유지했습니다.
- 마이크로소프트 530.14달러 (-0.16%): 분기 설비투자·리스 452억 달러(전년 +30%, 예상 506.7억 달러보다는 적음), FCF는 -27% 줄었지만 186.3억 달러 흑자를 지켰습니다.
- 마감 지수: 나스닥 26,184.72 (-1.38%), S&P500 7,720.39 (-0.30%), 다우 52,342.56 (-0.25%), 러셀2000 +1.01%, 반도체지수(SOX) 11,518.20 (-1.42%).
- 개별: 엔비디아 213.66 (-0.80%), 팔란티어 196.42 (-0.20%), 아이온큐 31.72 (-2.19%), 아마존 243.79 (-4.25%), 메타 624.52 (+1.96%), 오라클 139.56 (-3.45%), 마이크론 934.27 (-4.98%), 샌디스크 1,330.05 (-5.32%), 코어위브 60.74 (-4.99%), 블루아울 10.41 (+7.65%), GE버노바 887.85 (+1.12%), 아폴로 +4.50%, KKR +2.99%, 블랙스톤 +3.02%.
- 마감 뒤(중요): 아마존이 실적 미스, 인텔이 전망(가이던스) 미스를 내며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. 밤 9시경 수집한 나스닥100 선물은 -2.59%(28,796, 진행 중 값)로, 오늘 밤 미국 시장의 추가 하락을 예고합니다.
출처: CNBC 알파벳·MS https://www.cnbc.com/2026/10/29/alphabet-google-microsoft-msft-shares-today-earnings.html, 시간 외 미스는 위 한국 마감 기사 인용

■ 채권·환율·원자재

- 미 국채(10/29 확정): 3개월물 4.18%, 2년물 4.61%, 10년물 4.98%(-0.07%p), 30년물 5.32%. 전날 매파적 금리 동결(반대 2표가 인상 주장) 뒤 위험 회피로 장기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. 2년-10년 금리차 +0.37%p. [계산]
- 입찰: 10/29 7년물 입찰은 4.894%로 사전 예상금리와 정확히 일치(응찰배수 2.46, 해외 투자자 57.8%) - 수요 부진도 과열도 없는 평이한 결과.
- 한국 국고채 3년 3.713% (-0.055%p, 오후 4시 5분). 일본 국채 30년 3.843% (-0.053%p).
- 원화: 서울 외환시장 마감 1,334.3원 (-2.5원). 밤 9시경 네이버 기준 1,333.9원.
- 원유: 호르무즈 해협(중동 원유 수출길목)에서 유조선이 소형 보트가 부착한 폭발물에 피격됐다고 영국 해상무역기구(UKMTO)가 밝혔고, 미국 중간선거 뒤 미-이란 충돌 재개 우려가 겹치며 브렌트 12월물 +2.4%

117.62달러(이날 만기), 거래가 많은 1월물 113.58달러, WTI +2.1% 104.18달러(로이터, 10/30 오전 10시 45분 GMT). 10월 한 달 브렌트 +14%, WTI +15%로 4개월 연속 상승 흐름. 카타르에너지는 호르무즈 차단 사태에 대비해 미국산 등 LNG를 장기 매입해 헤지한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(10/29). 한편 카타르 중재자가 미-이란 협상을 위해 테헤란을 다시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.
- 금 온스당 3,975.90달러 (-1.38%, 진행 중 값).
- 미국 항공유·경유(EIA 현물): 최신 확정값은 10/27 - 항공유 갤런당 4.444달러, 경유 4.687달러. 10/28~30 값은 아직 미게시. 지난주(10/19~23) 주간 범위는 항공유 4.55~4.69달러, 경유 5.12~5.28달러였습니다.
출처: 미 재무부 일일 금리표, 입찰 https://helious.io/data/treasury-auction-tails, 로이터/유로넥스트 유가 https://live.euronext.com/en/financial-news/oil-set-fourth-monthly-gain-hormuz-tanker-attack-highlights-supply-risks, 카타르에너지 https://www.investing.com/news/commodities-news/exclusiveqatarenergy-buys-us-other-lng-to-hedge-future-hormuz-disruptions-4984306, 일본 국채 https://www.investing.com/rates-bonds/japan-30-year-bond-yield-historical-data, EIA, 네이버증권

■ AI 가격 신호 3종 (10/29 미국 마감 기준)

왜 보는가: AI 투자 붐의 균열은 지수 전체보다 '빌려 쓰는 쪽'과 '반도체'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, 세 가지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잽니다.
1. 반도체 대 지수 괴리: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(SOX) -10.22%, 나스닥 -2.56%. 괴리 -7.66%p로 전날(-6.32%p)보다 다시 벌어졌습니다. 반도체가 지수보다 빠르게 빠지는 상태가 이어집니다. [계산]
2. 빅4 대 취약 사업자: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(MS·아마존·메타·구글) 평균 -16.45% (MS -2.4%, 아마존 -14.2%, 메타 -19.7%, 구글 -29.5%), 취약 3사(오라클·코어위브·블루아울) 평균 -39.17% (오라클 -43.8%, 코어위브 -56.0%, 블루아울 -17.8%). 알파벳 폭락이 반영되며 빅4 쪽이 전날 -13.30%에서 -16.45%로 악화됐습니다. [계산]
3. 나스닥 고점 대비 -5.13% (전날 -3.80%). [계산]

[판단]

- 기조: '위험 회피' 유지. 어제 제시한 완화 조건(외국인 순매수 연속)이 오늘 1.6조원 순매도로 깨졌고, 알파벳 쇼크에 이어 아마존·인텔 미스까지 나와 밤사이 미국장 추가 하락이 예고된 상태라 방어적 태도를 풀 근거가 없습니다. 연기금의 8,929억원 매수는 의미 있는 방어지만 외국인 매도의 절반 수준입니다.
- 다만 알파벳 사건은 'AI 붐 전체의 붕괴'가 아니라 '설비투자를 빚으로 감당하는 회사와 현금흐름이 남는 회사의 구별'이 시작된 신호로 읽는 쪽이 아직은 정확합니다. MS는 같은 날 FCF 흑자를 지켰고 주가는 보합이었습니다.
- 판단이 바뀌는 조건: (1) 외국인 순매수 재개와 SOX-나스닥 20일 괴리의 -5%p 이내 축소, (2) 남은 빅테크 실적에서 알파벳형 FCF 적자가 확산되지

않는 확인, (3) 호르무즈 사건이 브렌트 120달러 위의 추가 급등으로 번지지 않는 것.
- 오늘의 새 판단 기록: "코스피 종가가 5,730.74 아래일 것" - T+1(11/2, 월)과 T+5(11/6, 금)에 각각 검증합니다.

[복기]

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.
- 10/23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550.30 아래일 것" (T+5, 10/30 검증) → 실제 종가 5,730.74. 빗나감.
- 10/29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937.66 아래일 것" (T+1, 10/30 검증) → 실제 종가 5,730.74. 적중.
- 해석: 어제의 '하루 뒤 조정'은 맞았지만, 일주일 전의 '5일 뒤 약세'는 중간의 급등(10/28 종가 6,012.44) 때문에 빗나갔습니다. 검증이 끝난 최근 11건(10/22 이후 판단 기준) 중 적중은 5건입니다. 적중이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지 않으며,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적인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둡니다.

[AI 위험 v1]

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.
- A.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·철회 (최근 30일 2건 이상): 미확인 - 실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알파벳의 장기차입금 급증(1년 새 약 5.8배, 1,251억 달러)과 FCF 적자는 '조달 실패'가 아니라 '현금흐름 경고'이며, 시장이 이 경고에 실제로 가격을 깎은 첫 대형 사례라는 점이 오늘의 의미입니다.
- B.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(force majeure) 통보 또는 지급 유예: 미충족 - 신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의 호르무즈 유조선 피격은 지정학 사건이지 AI 인프라 금융 사건이 아니므로 이 조건에는 넣지 않습니다.
- C. 사모대출 운용 3사(APO·KKR·BX)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: 미충족으로 해제 - 10/29 세 종목이 +3~4.5% 반등하며 APO -17.4%, KKR -16.9%, BX -19.2%로 모두 -20%선 위로 올라왔습니다. 전날에는 충족이었습니다. [계산]
- D. 엔비디아 또는 삼성·SK의 HBM(고대역폭 메모리,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) 실적 전망 하향: 미확인 - 하향 공시가 없습니다. 아마존·인텔의 미스는 이 조건의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AI 하드웨어 수요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시합니다.
- E. 전력 인프라 4종(GEV·HD현대일렉트릭·효성중공업·LS일렉트릭)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30% 이하: 충족 - HD현대일렉트릭 -70.1%, 효성중공업 -60.7%, LS일렉트릭 -53.0%, GE버노바 -24.4%. 4종 중 3종 충족(한국 3종은 10/30 마감, GEV는 10/29 마감 기준). [계산]
- 종합: 충족 조건은 E 1개('2단계' 해당). A·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(가능 범위 2~4단계). C는 하루 만에 충족→해제로 바뀌었는데, 이는 사모대출 3사의 10/29 반등 때문입니다.
-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,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.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
(끝)